

夏夏夏!

여름방학 즐기는 특별한 방법



●ACC재단 어린이창작실험실 여름방학 프로그램

“올 여름 더위 있고 ‘하하하’ 웃으며 가족과 함께 예술 감상 놀이터로 떠나볼까.”

여름 주제 예술체험·직업탐구 등 14종 구성
오는 27일-8월25일...“어린이 문화경험 확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27일부터 8월25일까지 ACC 어린이문화원과 어린이창작실험실 등에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하하(夏夏夏) 놀이터”를 주제로 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이야기 놀이터 ▲여름 놀이터 ▲스스로 놀이터 3개 소주제, 연령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14종으로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문화원의 전시·공연 연계 및 장소 특장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여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예술로 표현해보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예술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밤 시간에 어린이체험관에서 진행되는 ‘한여름 밤의 탐험대: 구해줘! 라마야나’다. 인도의 대서사시 ‘라마야나’ 이야기를 주제로

가족과 함께 각 영역의 미션을 수행하고 인형극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다. 긴 여름밤 더위를 날릴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여름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놀리와, 이야기 숲으로’, ‘나만의 여름정원 속으로’, ‘여름아 놀자!’ 등 어린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또 어린이도서관 전시 ‘구르구르와 세 친구의 모험’ 연계프로그램도 마련됐다. ACC재단 발간 그림책 ‘개굴개굴 고래고래’의 박현민 작가와 스틸 기법으로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내 맘대로 그림책’, 유아 대상 ‘고래야 비를 내려줘’가 준비돼 있다.

색다른 직업을 탐색해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을 미션 수행 방식으로 탐구하며 어린이 도서관 명예사서가 돼보는 ‘내 맘대로



도서관’, ACC의 공간과 공공미술을 중심으로 해설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투어를 실시하는 ‘ACC 어린이 해설사’ 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과정 이수자에게는 ACC재단 명의 수료증도 발급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 초청강연 프로그램 ‘별별직업탐구’에서는 SBS 글로벌 미술사 오디션 ‘더 매직스타’의 MZ 대표 미술사 아리엘을 초청한다. 창의성과 숙련된 기술을 통해 시각 예술의 영역을 환상적인 무대로 선보이는 미술사라는 직업을 재조명해보며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속속들이 풀어낼 예정이다.

수강신청은 ACC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단 프로그램별 참여 가능 연령이 다른 만큼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어린이문화원의 다채로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창작국악부터 뮤지컬까지... 남도소리올림터 공연 한마당

전남문화재단, ‘보배로운 잔치’ 등 오늘부터 기획공연 4편

전남문화재단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돼 7-9월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기획공연은 창작국악공연부터 어린이소리극, 뮤지컬까지 다채롭다.

먼저 첫 공연은 24일 오후 7시에 펼쳐지는 전주검무보존회·진도씻김굿보존회의 ‘보배로운 잔치’다. 궁중무용 중 가장 오래된 춤인 전주검무와 산 사람들의 염원을 표현하는 기도인 진도씻김굿을 한 무대에 관람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예술단체 타루의 어린이소리극 ‘벨벳토끼’가 무대에 오른다. 어른과 어린

이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가족 공연이다.

이어 다음달 24일 오후 4시 예술단체 ‘동화가 꽃피는 나무’의 어린이 창작 뮤지컬 ‘깃털피리’가 관객들과 만난다. 개성 넘치는 동물 캐릭터와 크고 작은 인형이 등장하는 복합극형식의 작품이다.

9월11일 오후 7시 무대는 미디어아트 활용을 해 한국 전통악기와 시를 노래하는 정가, 서양의 클래식 악기와 가곡을 새로운 성악 장르로 개발한 창작국악작품 ‘소속대로...음유시인’이 장식한다.

‘벨벳토끼’, ‘깃털피리’ 공연은 유료로 진행되며, ‘보배로운 잔치’와 ‘소속대로...음유시인’ 공연은 전석 무료다. /최명진 기자

‘오스카와 장미할머니’ 객원배우 공개 오디션

광주시립극단, 30일까지 접수

광주시립극단은 기획공연 출장 연극 시리즈 I ‘오스카와 장미할머니’(사진)에 참여할 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연기자 5명이다.

‘오스카와 장미할머니’는 에릭 엠마뉴엘 슈미트의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의 틀로 죽음을 바라보는 연작 소설 중 첫 번째 작품이다. 장단 후 꾸준히 야외극 시리즈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한 광주시립극단은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시민 친화 공연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응시원과 자기소개서를 이메일(gjdra.ma@h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오디션은 30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실시한다. 필수과목은 지정연기, /최명진 기자



자유연기, 면접이다. 합격자는 다음달 2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

한편 ‘오스카와 장미할머니’는 오는 10월3일 광주예술의전당 그라제 축제를 시작으로 10월5일 서구문화센터, 10월7일 광주디자인진흥원, 10월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까지 광주 각 구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최명진 기자

‘7인 7색 7분’... 광주의 문화를 말하다

내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제1회 청년 토론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호남학원구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제1회 ‘청년 7인 7색 7분 스피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의 문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광주에 거주하는 청년 7

명이 바라보는 광주 문화예술 7개 분야 현실을 7분 내에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는 자리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 예술과 문화 산업 발전에 지역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분야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청년네

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좌장은 스타 강사로 유명한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가 맡으며, 국제화(해본디안 크리스티나 전남대 국문과 박사수료), 영화(정지윤 전남대 호남학과 박사과정), 예술(선유라 댄스컴퍼니 Sun&Friends 대표), 관광(서근중 휴심정 대표), 문화산업(윤혁진 오로지스튜디오 대표), 푸드(김진아

룩앤아트 대표), 건축(이상희 동강대 건축과 교수) 분야 청년들이 참가한다.

종합토론에는 강신겸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 김은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무관, 박준영 광주관광공사 본부장, 신준호 전남대 교수, 정경은 전남대 교수가 나서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자유롭게 입체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광주 문화예술 발전 방향과 쟁점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